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8호 현대불교
2008년 2월 27일(음력 1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내 증생들을 제도하라!

부처님의 곱수를 알려면

문 얼마 전부터 '정말 이 부처님의 도리를 알려면 부처님의 곱수를 알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앉아서 관해 보기도 하는데 누구한테 여쭙어서 빨리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생각도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몇 년이 걸리든 꿰고 들어가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 속에 있는 의식은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나옵니다. 그 의식에서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좋게 보이든지 나쁘게 보이든지, 맑게 보이든지 뭐 이런 걸 모르고 두서없이 나오게 하는데, 다스리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다스려야 한다 이겁니다.

다스려서 그 증생들을 제도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냐. 위로는 한마음을 갖고 아래로는 내 이 증생들을 제도하라. 내 증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천백억화신이 화(化)하지 못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증생들 제도 못하니까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거야. 아무리 '보살'이다.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부처의 이름을 크게 가지고 있다. 내가 공부할 이렇게 했으니깐 큰 도사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깐 큰스님이다' 이래도 이거 전부 다 오산입니다. 그건 이름 일 뿐입니다.

예전에 내가 원주에 있을 때, 어느 동네에서 개가 아프고 소가 아프고 닭이 아프고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돼지를 기르는데 그 돼지가 아파서 죽는다면, 우리는 살림을 다 망쳐 버리고 애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들었더라면 보살로 화해서 돼지 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되었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독사를 건지기 위해서 독사 속에 들어갔을 때 독사를 보고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하나 건지기 하나 안돼 보시는 게 없는 그 마음 자체의 그 무한량, 광대무변한 이 법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한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걸 떠나서, 모두 여러분은 기복으로 가지 마세요. 바깥으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바깥으로 찾았다면 부처님께서 '너는 내 고깃덩어리만 아는구나. 내 가족만 아는구나. 내 뼈다귀



그림 · 최추현

만 아는구나. 내 곱수를 모르는구나.' 하고선 눈을 감으실 겁니다. 아마, 모두 알아야 '저 형상은 내 형상이요, 저 몸은 내 몸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내 마음 내 생명과 돌이 아닌 게 되죠. 우리 법당에도 부처님을 모셨지만 다 알고 난 뒤에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으로 보일 수 있는 그때까지,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 부처가 아니고 돌이 아니라는 그걸까야 아셔야 합니다.

이 부처님의 마음, 마음자리 곱수를 보려면 여러분의 곱수를 알아야 부처님의 곱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산(日山) 오백 개를 한데 합쳐서 삼천대천세계에 굴러서, 요리를 만 들어서 보여 준 뜻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신(自性神), 즉 말하자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안이 궁이거든요,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궁. 그 궁, 등(燈) 밝은 그 마음들을 밝은 거기에다가 한데 그냥 합쳐서 탁 주장자를 보여 주니깐 확 밝아지면서 대천세계가 그대로 잘 보이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좀 더 그렇게만 가실 수 있다면 스스로 그 궁 안의 밝은 등을 그대로 볼 수 있고, 바깥이나 안이나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로 보려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봐도 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컵 하나를 보더라도 보기만 한다고 뭐 되는 줄 아세요? 보기만 해도 안 되고 갖다가 갖다가 들었다가, 이래도 안 되고 또 이거 있다는 거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도가 아니에요. 단지 이 컵을 마음대로 들고 왔다 갔다 할 줄도 알고,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그 속을 맡아주세요. '이게 지금 어디서 왔나?' 이거를 알아야 하고, 또 '이것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것도 알아야 하고, 그러고선 요계 어떻게 만드냐 하고선 요걸 갖다 주기도 하고, 요걸 갖다 먹기도 하고 이래야 도예요. 예? 이 과정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고,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대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대권이라 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다. 그러니 그 대권을 얻어라 이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처음에 주인공에 놓는 공부, 무조건 믿고 놓고 물러서지 않는 거. 두번째는 아프거나 어떠한 일이 생겼어도 거기서부터는 해결 못한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거. 한 발짝도 우리

가 그냥 때어 가는 게 없어요. 생각 하나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깐요.

그러니깐 거기가 그렇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자기가 발견이 됐다 하면 들이 안 닦아도 되는데도 또 거기가 맡겨 놓고, 역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라는 대로 해서 나쁜 일은 하지 말라 이거야. 좋지 않을 일은, '아! 이거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런 거를 시키나. 아! 나의 사람 뭉뚱이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는구나!' 하고선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상심이 웃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죠. 맡기고, 거기에 속아서 그냥 그걸 들고는 남의 호박 따르라고 호박 따고, 호박인 따르라고 호박인 따고, 도둑질하라고 도둑질하고, 나기린다고 나가고 들어오라고 들어오고, 이게 온통 무슨 야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 주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이겁니다. 자기가 걸어 보지 않고 자기가 가 보지 않은 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 놓고 여러분이 그렇게 진실하게 이대로 하신다면 나도 거기 대동소이하게 따라 주는 겁니다. 도둑놈이란 게 뭐 망보는 놈은 도둑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이나 말을 이렇게 해 드리는 나나 다 도둑놈이 되듯이, 그렇게 말을 해 주었으니깐 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이거는 잘못되면 안 되니까.

또 이거는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여기 이 마음에도 맡기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도 형설수설하는 거를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맡겨 놓으면 그 정신병자들이 다 나아오. 본인들이 그렇게 못해서 더디지, 잠깐 그렇게 그랬던 사람은 그냥 금방 괜찮아지죠. 그러니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날뛰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돈이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극치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새 밭의 피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침착하게 생각해 가면서 연구하는 것이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이날까지 이렇게 짧으면 길게 하고 길면 짧게 하고,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 창살 없는 인간 게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문 스님, 제 막내아들이 회사에 넣어 놓으면 나오고 방에 들어앉아서 사람 모인 데는 안 가고, 늙은이처럼 한숨만 쉬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산소 상석을 봐서 그렇다고 하는 말도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답 그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 나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고가 많습니까? 병고도 많고 애고(哀苦)도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과거를 못 보잖아. 현실을 보거라. 현실에 다가오는 걸 본다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느냐. 현실에 어떻게 하는가 하고 너를 지켜볼 때에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뺏아 갔어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을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한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영상과 함께...

풍경영상기획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터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풍경영상기획 0551867-0844,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2008년도 영남범음범패 및 작법무 제5기 수강생 모집

첫개강 2008년 3월 15일

영남범음범패 (통도사소리)
◇매주 : 토요일 오후 3시 회비 월10만원 (복음기, 필기구 준비)

- ▶ 기초반 안채비 ~ 불공의식까지 (1개월) (요령, 목탁치는법, 도량서, 새벽중성, 조석예불, 각단불공)
- ▶ 중등반 안채비 ~ 천도의식까지 (5개월) (상용영반, 종사영반,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경시식, 다비문(초상집영문))
- ▶ 전문반 바깥채비 ~ 불공,천도재 (1년) (범패, 징, 강쇠, 북, 호적(대평소))
- ▶ 연구반 바깥채비 ~ 제반의식 모든과정 (3년) (점안식, 예수재, 수록재, 영산재 등 모든 과정)
- ▶ 불교유망반 통도작법 - 나비춤, 바라춤 (1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회비 월10만원

◇자 격 : 불교전통의식에 관심이 있는분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영남에서 사찰의 규모가 큰 범음범패 교육도량으로 전통 그대로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불 광 사

종무소 055)364-4747 / 주지실 055)364-48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랭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재단법인 금강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총본산 : 경남 통영시 용봉사
본 종단은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각 사,庵의 재산권은 주지가 책임지고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비치, 요청 시 팩스 혹은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각 2통
- 여권용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외부) 각 한장씩

※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명명장, 승려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예비승 · 행자모집
-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서류전형후 면접)

- 처사 · 공양주 하실 분 모집
- 문의처 : 재단법인 한, 중, 원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9-5959 / FAX 055)649-5974
- 담 당 : 총무국장 011-857-1865

총무원장 혜명 합장